

아프리카와 민주주의: 세네갈 사례의 역사 및 전략적 분석

조 홍 식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세네갈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아프리카 정치의 구조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 국가의 유산이나 민족 국가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종족적 갈등,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등을 세네갈이 극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과 전략적 과정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특히 구조적 요인으로 세네갈이 식민 시기에 가졌던 반 중심부적인 지위, 이슬람과 월로프(Wolof) 종족성을 중심으로 국가 및 민족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특수성,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도적인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략적 과정에서는 선거 전통의 수립, 여권의 분열과 야권의 단합, 정권 교체를 갈구하는 시민의 동원, 그리고 2단계 선거 제도 등의 조합을 제시한다.

주제어: 아프리카, 민주주의, 세네갈, 국가, 민족, 정체성

1. 아프리카와 민주주의

아프리카는 민주주의와 그다지 친화적이지 못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Akindes, 1996; Droz, 2006; Englebert, 2000; Young, 1994). 아프리카는 15~16세기 유럽 중심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적 약탈의 가장 커다란 희생 지역이었다. 19세기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에 노예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는 매우 경쟁적이고 호전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 아프리카는 유럽 열강이 직접 지배하는 식민 지역으로 돌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잔혹한 지배와 약탈이 이어졌다. 20세기 중반부터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탈 식민화로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지만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은 더욱 강화되었다. 종족간의 분쟁과 빈번한 쿠데타, 내전으로 인한 비극은 아프리카 정치의 대명사처럼 등장했다(한양환, 1999). 21세기 현재까지도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이한규, 2001).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어려운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우선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정치가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외모와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외부적 지배 집단이 조직화된 폭력을 통해 억압적인 식민 국가를 형성해 놓았고, 이 비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를 독립 이후 물려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현은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Young, 1994: 282-292). 폭압적 식민 국가 체제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국가 경제 자체의 인위적 성격이다.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공동체가 국가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식민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신생국의 국경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가 통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Badie, 1992).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민족 공동체 의식이 아프리카에서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연결되어 제시되는 또 다른 설명은 아프리카인의 전 근대적 종족 의식이다

(Thies, 2009). 아프리카인은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보다는 과거의 종족이라고 하는 원시적 공동체에 여전히 충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이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요인은 특히 아프리카의 숲한 분쟁과 내전을 설명하는데 도입되었다(Bates, 2008). 끝으로 경제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하나가 일명 ‘자원의 저주’론인데,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는 생산적인 활동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정치적 불안과 분쟁 및 내전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Karl, 1997; Shafer, 1994). 다른 하나는 자원조차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빈곤 자체가 약탈적 국가를 발생시키고, 이런 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세네갈은 민주주의가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Fatton, 1987; Han, 2001). 지난 2012년 3월 대선에서 세네갈을 12년간 통치해 왔던 압둘라이 와드(Abdoulaye Wade)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를 인정하고 사임함으로써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The Economist, 2012). 놀라운 사실은 와드 대통령 자신이 2000년 디우프(Abdou Diouf)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어 최초로 정권 교체를 실현한 야당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결국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매우 드물게 두 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선거를 통해 달성한 국가가 되었고 이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 돌입한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네갈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아프리카 정치의 구조적 제약을 감안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세네갈 역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식민 국가의 유산이나 민족 국가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종족적 갈등,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등을 모두 논의하면서 세네갈의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특히 세네갈이 식민 시기에 가졌던 반 중심부적인 지위, 이슬람과 월로프(Wolof) 종족성을 중심으로 국가 및 민족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특수성,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도적인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전개된다. 첫째, 세네갈에서 민주주의

가 점진적으로 정착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한다. 둘째, 세네갈이 아프리카에서 예외적으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구조적인 요인들이 민주화로 실현되는 과정의 전략적 차원을 포착함으로써 세네갈 사례의 보편화 가능성을 논의한다.

II. 세네갈 민주화의 단계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형식과 내용을 기초로 한 두 종류의 정의가 존재한다. 형식상 민주주의는 보편 투표권의 행사로 경쟁하는 정치 세력 가운데 선택을 통해 집권 세력을 결정하는 제도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와 견제, 소수에 대한 보호 등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부터 경제사회적 평등을 철저히 고려하는 사회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Gellar, 2005: 1-12). 형식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본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1) 경쟁적 정치세력의 존재, (2)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치 경쟁의 과정, (3)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치를 통한 해결, (4) 평화적인 정권 교체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 조건에서 본다면 1974년의 다당제는 첫 번째 조건을, 그리고 1980년의 생고르(Senghor)의 사임은 네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셈이다. 그리고 2000년의 대선과 2012년의 대선은 여야 정권 교체로서 종합적인 조건 충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따라 세네갈의 민주화 과정을 단계별로, 거시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60년 세네갈이 독립함으로써 국민의 보편 투표권이 인정되지만 정치 세력의 다양성이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1980년 처음으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이뤄지는 시기다. 내전이나 쿠데타로 잦은 정권 교체가 이뤄지던 대륙에서 1980년 세네갈의 생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다우프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했던 경험은 어떤 의미에서 세네갈 민주화의 첫 단추였다고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실현되면서 선거를 통한 경쟁이 일반화되고, 그 경쟁을 통한 여야간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시기다. 야당의 지도자 와드 후보는 1978년 대선에서 생고르 대통령과 경합을 벌이면서 세네갈 정치를 양자 구도로 만들었고 반복적인 대결 끝에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아프리카 정치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실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 다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로 물러남으로써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일상화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시기다. 와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삼선에 도전했지만 야권 후보 마키 살(Macky Sall)에게 패배한 뒤 평화적으로 물러남으로써 세네갈 정치를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돌입하게 하였다.

1. 평화적 권력 이양

1980년 12월 세네갈의 생고르 대통령은 임기를 3년이나 남겨 놓은 상황에서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헌법 35조에 의해 당시 총리였던 압두 디우프가 대통령에 1981년 1월 1일 취임함으로써 평화적인 대통령 교체를 실현하였다(Decraene, 1985).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아프리카에서 정상적인 서구식 정당과 선거의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1960년 독립한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 생고르는 20여 년간 확고부동의 독재자로 군림하였다. 생고르는 1960년 프랑스와 유사한 이원집정제적 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마마두 디아(Mamadou Dia) 총리와 권력 투쟁을 벌였고, 그를 감옥에 보낸 뒤에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로 제도를 변화시켰다. 생고르는 새 헌법 하에서 1963년, 1968년, 1973년, 1978년 잇따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세네갈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생고르가 주도하는 세네갈진보연합(UPS, Union Progressiste Sénégalaise)의 단일 정당 체제를 수립하여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1970년대 경제 위기와 국민 불만의 고조에 따라 다당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서의 다당제가 아니라 세네갈진보연합의 정파를 정당으로 인위적으로

꾸민 형식적 다당제였다.¹ 쟁고르가 1978년 대선에서 82%를 득표하고, 총선에서 쟁고르의 사회당이 의회의 100석 중 83석을 차지한 데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고르는 1960년 세네갈이 독립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 두 차례 제정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두 차례 하원 국회의원으로 세네갈에서 당선되었다(Diouf, 2001). 그리고 1955년부터 56년까지는 프랑스 에드가르 포르(Edgar Faure) 내각에서 장관을 역임하였다. 세네갈의 소설가 우스만(Ousmane, 1981)이 그를 ‘제국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불렀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프랑스 제국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된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쟁고르의 두 번째 부인이자 세네갈의 퍼스트 레이디로 등장한 여성 역시 프랑스 여인이다. 쟁고르가 1980년 세네갈 대통령직을 사임한 뒤 돌아간 곳은 조국의 고향이 아니라 프랑스였고, 그는 1983년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즉 프랑스 학술원의 종신 회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아프리카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문화의 영원한 이름으로 부상하였다.

쟁고르의 평화적 권력 이양은 아프리카 정치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M'Bokolo, 1985). 예를 들어 1960년부터 집권했던 카메룬의 아마두 아이조(Ahmadou Ahidjo) 대통령 역시 1982년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또 다른 평화적 권력 이양의 사례로 등장했다. 물론 카메룬과 세네갈은 비슷한 시기에 평화적 권력 이양을 경험했지만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했다. 세네갈이 민주화의 장기적 흐름을 걸어왔다면 카메룬은 당시 후계자로 등장한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이 2012년 아직까지도 집권하면서 독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대통령 펠릭스 우푸에 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는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도중에 사퇴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1993년 사망할 때까지 권좌를 내놓지 않았다(조

1. 쟁고르 대통령은 1974년 형식적으로 다당제를 도입했는데 세네갈진보연합 내부에 존재하던 자유주의 계열 세력이 세네갈민주당으로 독립하는 것을 인정한 제한적 다당제였다. 이 자유주의 계열은 아마두 디아 전 총리의 세력이었고, 새로운 정당의 리더로 등장한 압둘라이 와드는 디아의 변호를 맡았었다. 결국 초창기 세네갈의 다당제는 단일정당의 분열로 등장한 인위적 다당제의 성격이 강했다.

홍식, 2010). 세계적으로 서구는 생고르의 사임과 권력 이양을 칭송하면서 세네갈 정치에 대한 호평을 내놓았다.

2. 여야의 정권 교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20년 장기 집권의 압두 디우프 대통령은 야당 세네갈민주당(PDS, Parti Démocratique Sénégalais)의 후보 압둘라이 와드에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여야간의 정권 교체를 실현하였다. 세네갈 민주화의 역사는 사실 생고르와 디우프로 연결되는 세네갈사회당과 와드로 대표되는 세네갈민주당의 길항관계라고 할 수 있다(Cruise O'Brien et al., 2002).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 선거는 1963년부터 치러졌지만 1963년, 1968년, 그리고 1973년 세 차례의 선거는 생고르가 단일 후보로 100%의 득표율을 자랑했다. 하지만 1978년 선거부터는 와드가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점진적으로 득표율을 상승시키는 긴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네갈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선까지 다섯 차례의 경쟁적 대선을 치렀다. 반복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의미이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적어도 1993년 선거까지는 집권당의 대통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득표율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다지 위협하지 않은 유용한 정통성 창출의 도구로 작동한 셈이다. 2000년의 선거도 사실 1차 투표에서는 디우프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와드 후보의 31%보다 10% 포인트 가량 앞서 있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의 승리 가능성은 높았다. 게다가 16.77%를 득표한 3위의 무스타파 니아스(Moustapha Niasse) 후보와 7.08%를 득표한 4위의 지보 카(Djibo Ka) 후보는 모두 사회당 출신 인사로 정치성향 별로 본다면 사회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도였기 때문이다. 결국 반복되는 승리의 제도로서 대통령 직선제에 사회당은 투자를 하였으며,

〈표 1〉 세네갈의 대통령 선거: 1978~2000년

	사회당	민주당
1978년	생고르 80.02	와드 17.38
1983년	디우프 83.45	와드 14.79
1988년	디우프 73.20	와드 25.80
1993년	디우프 58.40	와드 32.03
2000년 1차 투표	디우프 41.30	와드 31.01
2000년 결선투표	디우프 41.51	와드 58.49

주: 단위: 득표율 %

자료: African Elections Database

민주당도 와드의 대통령 만들기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폈다. 그리고 2000년 결선 투표의 결과는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였다.

3. 민주주의 공고화

일반적으로 평화적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두 번 정도 이뤄지면 민주화가 공고화의 단계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세네갈의 경우 2000년 최초의 정권 교체 이후 2012년 다시 여야 교체가 이뤄짐으로써 공고화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야당 지도자가 막상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매우 강력한 독재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코트디부아르의 역사적 야당 지도자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는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뒤 내전을 불사하는 독재의 성향을 드러냈으며(Bouquet, 2007),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무력으로 저항하다 체포되었다.

와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변화를 통해 자신의 장기 집권과 향후 세습의 발판을 마련하려 노력했다. 그는 당선된 다음 개헌을 통해 7년제 대통령제를 5년제 임기로 축소하였고, 재선까지만 가능하도록 임기 수를 제한했다. 지속적으로 연임되었던 과거 생고르와 디우프의 독재 및 장기 집권을 방지하려는 민주적 열망을 반영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표 2〉 세네갈의 대통령 선거: 2007년과 2012년

	민주당	야권
2007년	와드 55.90	이드리사 쉐크 14.92
2012년 1차 투표	와드 34.81	마키 살 26.58
2012년 결선투표	와드 34.20	마키 살 65.80

주: 단위: 득표율 %

자료: African Elections Database

자신이 2007년 성공적으로 재임에 성공한 다음에는 장기 집권과 세습을 계획하였다. 우선 자신의 아들을 정권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세습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였고, 새로운 개헌을 통해 대통령-부통령 티켓 선거제를 구상하였다. 대통령의 유사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80대의 자신이 사망하면 선거 없이도 아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하려는 계획으로 야권은 간주했다(Chatelot, 2012c).

이에 대한 저항 운동이 2011년 강력하게 일어나자 와드는 개헌 계획을 접었다. 또한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와드 대통령이 헌법의 삼선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와드 대통령은 이전의 헌법에 의해 2000년에 당선된 것은 삼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새 헌법에서는 2007년에 이어 2012년이 재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야권이나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었다.

2012년 선거에서 당선된 마키 살 후보는 와드가 야당 지도자였던 시기에 그를 도우며 정치에 입문한 민주주의자다. 와드가 집권에 성공한 뒤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와드의 총리로 장기적으로 활약했으며, 2007~8년에는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의 아들 카림 와드(Karim Wade)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급기야 2008년 말 살은 자신의 정치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국연맹(Alliance pour la République)을 창립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위의 니아스(13.20%), 4위의 디엥(Dieng, 11.30%), 5위의 쉐크(Seck, 7.86%) 등의 야권 후보를 모두 연합하여 와드 대통령에 대항하는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하였다(Châtelot, 2012a). 이를 통해 세네갈은 이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징적 민주주의의 모델로 부상하게 되었다.

III. 민주주의 구조적 요인

세네갈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² 우선 세네갈은 검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매우 특수한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다. 물론 세네갈 내에서도 상당한 지역별 차이점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도 및 해안 지역에서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시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선거의 경험을 관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네갈은 아프리카 신생국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동질성이 강한 월로프 이슬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해서 하나의 국가 내에서 통일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양한 종족 공동체가 경쟁하고 대립하는 아프리카 특유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조건의 연장선에서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발전시켰고, 이 민족적 자의식에 독립 이후 민주주의라는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민주화를 지속하는데 기여했다.

1. 식민지의 특별한 유산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검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5세기 포르투갈인들이

2. 거시 역사적인 민족의 구성에서 종교, 종족, 정치 등이 상호 작용을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는 정치철학적 접근으로 스미스(Smith, 2003)나 역사학적 접근으로 헤이스팅스(Hastings, 199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대서양에 진출하여 아프리카 연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사하라를 지나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바로 현재의 세네갈 지역이다(Diouf, 2001: 93-104). 16~18세기 노예 무역이 한창일 때 세네갈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통틀어 가장 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네감비아라 불리는 세네갈 강과 감비아 강 유역은 서구 제국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이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생루이(Saint Louis), 고레(Gorée) 등의 기지를 놓고 충돌했는데 결국은 프랑스의 승리로 귀결되었다(Faidherbe, 1889).

세네갈은 프랑스의 가장 오랜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프랑스 본토의 민주화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된 대표적인 지역이다(Bancel et al. 2003). 1758년에는 생루이에서 혼혈인이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1848년 이후 세네갈은 프랑스 의회에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해 파견할 수 있었다. 제3공화국 시기에는 생루이와 고레, 그리고 다카르(Dakar)와 루피스크(Rufisque)의 네 지역이 프랑스 본토의 행정구역인 쾰뫼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들 지역의 주민은 프랑스 시민권을 인정받았다. 같은 세네갈이지만 쾰뫼 지역의 주민은 프랑스 시민, 기타 지역의 주민은 신민이었던 셈이다. 거대한 프랑스 제국에서 실제로 동화주의 정책이 시행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세네갈의 해안 도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Crowder, 1962). 1914년에는 디아뉴(Blaise Diagne)라는 세네갈인이 프랑스 하원에 세네갈 지역 의원으로 당선되어 진출했다. 프랑스 식민 행정 관료로 성장한 디아뉴는 1934년 사망할 때까지 프랑스 하원에서 세네갈 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식민지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인을 징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 제국에서 식민지 주민의 시민권은 조금씩 확대되었고 1956년에는 보편투표권이 인정되었다. 이 같은 특수한 식민지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선거 정치의 경험은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세네갈의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계층은 2세기 가까이 프랑스인의 선거 정치를 관찰할 수 있었고, 백 년 넘게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반 세기 정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던 것이다. 세네갈은 프랑스의 위선적 제국주의 동화정책의 전시장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문에

세네갈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민주 정치의 경험과 의식이 축적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프랑스는 19세기말 아프리카 식민지를 두 개의 커다란 그룹으로 나누어 통치했다. 하나가 세네갈이 속해 있는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 AOF)이고 다른 하나가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Afrique Equatoriale Française, AEF)이다. 생루이(1895~1902년)와 다카르(1902~60년)는 AOF의 수도로 거대한 지역의 행정 중심으로 부상했다. 다카르의 총독부는 프랑스 식민성의 직접 통제 아래 있었고, 총독부가 서부 아프리카의 다른 식민지를 총괄했다(Hugon, 2009: 39-41). 세네갈인의 의식에서 이러한 식민 시기의 유산은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특히 상기 네 개 품문의 세네갈인은 프랑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민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하급 관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세네갈은 프랑스 제국에서 반 중심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부상했었던 것이다.

2. 민족 종교 공동체

세네갈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월로프라는 언어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세네갈의 종족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로프라고 하는 종족의 언어가 일종의 공용어로 부상하는데 성공한 매우 특이한 경우다. 월로프는 세네갈의 서부 연안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종족 집단인데 식민 시기 도시가 연안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로프가 공용어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네갈 국민의 70% 이상이 월로프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세네갈은 다른 대서양 연안의 지역과는 달리 종교적 대립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 국가다.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은

〈표 3〉 세네갈의 주요 종족 집단

월로프	43.7%
할풀라르	23%
세레르	14.2%
다올라	5.5%

자료: Diouf(2001: 75-89)에서 재구성

모두 북부의 이슬람 집단과 남부 연안의 기독교 또는 토속신앙 집단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네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토속 신앙과 이미 긴밀하게 융화된 경우다. 예를 들어 세네갈에서 마라부(marabout)라고 불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은 이슬람의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속 신앙적 기능을 행하기도 한다(Copans, 1980). 바야르(Bayart, 2010)는 세네갈의 이슬람을 이란이나 터키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화주의 이슬람’이라 부르며 근본주의적 성향에서 탈피한 세속화 가능한 이슬람, 또는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슬람으로 분석한 바 있다.³

월로프 언어 및 문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결합은 세네갈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세네갈에는 특히 카디리야(Qadiriyya), 티자니아(Tidjaniyya), 무리드(Mouride) 등으로 불리는 이슬람 종교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신도의 일상 생활에까지 세밀하게 간여하는 조직으로 젤라(Gellar, 2005)와 같은 학자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조직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95%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70% 이상이 월로프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네갈의 민족 통합은 성공적일 수 있었다(Cruise O’Brien, 1979). 그 결과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족 간 대립이나 내분의 상황을 피하여 민주화의 과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식은 민주주의를

3. 바야르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란, 터키, 세네갈의 사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는 이란이다. 왜냐하면 터키와 세네갈은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공화주의와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란의 경우 바야르는 근본주의 성향의 혁명으로 수립된 이슬람 국가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와는 달리 세속적 권력의 공화주의적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실현할 수 있는 틀로서 자연스럽게 해당 국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3. 선민의식

선민 의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치 공동체에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스미스는 민족 공동체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시민적 결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정치와 경제적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 종교, 문화, 인종, 종족과 관련된 담론이 자부심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mith, 2003). 이러한 이야기와 담론은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정치 공동체와 구성원 간에 강력한 연결 고리와 충성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특히 정체성의 요소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면 민주화의 가장 커다란 지원 요소가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네갈의 선민의식의 기원은 식민 시기 서부 아프리카의 수도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 통치의 행정적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했다(Bayart, 1989). 예를 들어 윌리엄 폰티(William Ponty) 사범학교는 서부 아프리카 엘리트의 산실로 기능했다.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대통령 우푸에 부아니, 말리의 초대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Modibo Keita), 세네갈의 와드 전 대통령은 모두 윌리엄 폰티 출신이다. 세네갈은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식민 시기 자리매김했지만 독립 이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초대 대통령 쉹고르는 정치인보다는 시인으로서 더 유명하다. 그는 흑인의 정체성을 네그리튀드(Négritude)라는 아름다운 흑색 문화로 규정하고 범아프리카주의의 기반을 제공한 바 있다. 쉹고르의 정적이었던 역사가자 쉹크 안타 디오펜(Diop, 1967)은 아프리카 중심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 문명을 아프리카 흑인의 문명으로 해석하고 아프리카의 문명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되면서 서구가 개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세네갈은 파라오 문명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세네갈 인텔리겐차가 주도하는 셈이다. 그 전통 속에서 다카르에는 종속 이론가 사미르 아민(Samir Amin)이 설립하고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의 지식 패러다임 개발을 목표로 하는 Codesria 연구소가 활동하고 있다(Amselle, 2010).

무엇보다 세네갈 시민의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상의 선민 의식이 민주주의의 경험과 연결되면서 선도적 민주적 국가 정체성으로 발달했다는 점이다. 세네갈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독립 이후 역사의 중요한 요소는 한 번도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세네갈은 1978년 이후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왔다. 그리고 평화로운 대통령 교체, 여야 정권 교체 등의 경험을 누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결코 풍요롭지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선진적인 나라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Châtelot, 2012b)

IV. 민주화의 전략적 과정

구조적인 요인들은 그 자체로 민주화를 도래하게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사고와 선택이 구체적으로 조합되어야지만 비로소 민주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네갈 민주화의 세 개의 모멘텀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전략적 환경과 요소가 쟁고르, 디우프, 와드 대통령으로 하여금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게끔 했는지 분석해 본다.

1. 쟁고르의 선택

1960년부터 세네갈 독립의 아버지로 철권 통치를 해 오던 쟁고르 대통령

이 1980년 돌연 사임을 선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특히 그는 1978년 대선에서 8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선택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1970년대는 세계적 경제 위기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세네갈로서는 무척 어려운 경제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였다. 세네갈은 식민 시기 식용유를 생산하기 위한 땅콩 경작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그 때문에 땅콩에 매우 의존적인 농업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식용유 생산에 땅콩이 아닌 농작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세네갈은 핵심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추가되면서 세네갈과 같은 석유 수입국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Diop, 2002: 63-82). 게다가 정치적으로 쟁고르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표출되었고 그 결과 쟁고르는 다당제를 수용하였다. 1978년 선거에서 쟁고르는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지만 이미 노쇠한 정치 지도자였던 쟁고르에게 민주적 경쟁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높다.

위에서 쟁고르를 제국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1980년 사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쟁고르라는 인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는 정치에 모든 것을 투자한 전형적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네그리튀드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으며 시인이었다(Senghor, 1964). 쟁고르에게 소중한 것은 이미 20년이나 통치한 세네갈을 계속 장기 집권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칭송을 받는 문화인의 길이었을 것이다. 그가 프랑스 최고 명문인 루이대왕고등학교와 고등사범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도 그의 성공 기준이 아프리카 토속 정치인과는 달리 프랑스의 엘리트의 기준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케 한다. 그가 사임할 당시 그는 이미 74세였고 35년을 식민지와 독립 세네갈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실제 쟁고르는 사임 후 프랑스에 가서 생활했고,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최초의 아프리카인으로 선출됨으로써 최고의 문학적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2001년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쟁고르의 삶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제국의 중심이었던 셈이다.

2. 디우프의 결단

세네갈 민주화의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은 2000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패배한 디우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여 권력을 이양한 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선거 경험이 누적되면서 사회당의 디우프가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디우프 대통령은 쟁고르의 사임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디우프는 세네갈의 대표적인 엘리트 행정 관료로서 오랜 기간 국정을 책임져 왔다. 특히 1970년부터 총리로 10년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국가 관리에 탄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1983년 쟁고르의 잔여임기를 마친 뒤 그는 쟁고르의 1978년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83% 이상의 득표율로 와드를 눌렀다. 그 뒤로 1988년의 재선, 그리고 1993년의 삼선 등 세 차례나 같은 야당의 후보 와드에 승리를 거두었다(Diop et Diouf, 2002: 102-141). 득표율은 정기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⁴

2000년 정권 교체의 조건 중 하나는 여권의 분열이다. 세네갈사회당 정권 아래 총리를 지냈던 니아스와 카가 분당하여 대선 후보로 나섰고 이들이 각각 16.77%와 7.08%의 득표율을 과시했다. 니아스는 1990년대 장기간 세네갈의 외무 장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카 역시 1990년대 외무 및 내무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40년 장기 집권의 사회당 정권이 서서히 분열로 붕괴의 조짐을 보였던 셈이다.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의 시기에 니아스는 와드를 지지했고, 카는 디우프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카의 정당은 와드를 지지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대한 일반적 욕망을 대변했다.

결선 투표에서 패배한 뒤 디우프의 권력 이양 결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

4. 물론 디우프의 1988년 재선 및 1993년 삼선 과정에서 야권은 반복적으로 정부와 여권의 선거 부정을 지적했고 특히 1988년의 경우 선거의 후유증으로 정국이 장기간 혼란에 빠졌고, 대규모 학생의 유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세네갈의 선거 정치가 평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를 통한 정치의 전통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었다. 과거 여권 세력이 일부 와드와 연합하였고 그만큼 디우프도 국가권력의 통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변했다. 와드는 또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군부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보장해야 한다고 미리 선수를 치기도 했다. 디우프 역시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상당히 합리적인 관료 출신이었고 퇴임한 이후 프랑스에서 거주할 정도로 친 프랑스적, 프랑스화 되어 있는 엘리트였다. 그는 2002년 프랑스어권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국제외교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Tréan, 2002).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세네갈 민중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었다. 도시 청소년들은 적어도 1988년 이후 민주화를 지지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매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사회당 지배의 중요한 기둥이었던 종교 집단들도 더 이상 디우프를 공개 지지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지하더라도 신도들이 반항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엄청난 민중의 저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상황이 평화적 이양을 가능하게 했다.

3. 와드의 포기

와드는 민주화를 추진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집권한 다음에는 장기 집권과 세습의 욕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패배하자 계획을 포기하고 순수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네갈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다. 생고르가 프랑스인에 더 가깝고, 디우프도 매우 프랑스적인 세네갈인이었다면, 와드는 세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세네갈 현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프랑스 유학파가 아니라 윌리엄 폰티 사범대 출신이다. 하지만 와드 역시 야당 지도자로 경험을 축적하면서 네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했다. 여섯 번째의 선거에서는 재선되었고, 일곱 번째 선거에서 다시 패배한 셈이다. 전 세계 정치사에서 일곱 번 대선에 도전한 기록은 무척 드물 것이다. 아무튼 와드는 경험을 통한 선거 제도와 규칙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당의 분열이 2000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집권을 가져왔듯이 2012년에는 새로운 여권 민주당의 분열이 정권교체의 원인이었다. 다만 2000년에는 사회당의 분열이 상대 진영에 승리를 선사했지만, 2012년에는 와드 진영에서 독립한 살이 승리함으로써 사회당은 여전히 과거 장기 독재의 책임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살은 1차 투표에서 26% 남짓한 득표율에 불과했지만 ‘같은 희망을 위한 동맹(Benno Bokk Yakkar)’을 형성하여 와드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를 연합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게다가 2012년 국제 정세는 2000년과는 또 다른 형국이었다. 그 사이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개입의 정당성과 경험이 축적되었다. 2002년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되었고, 2011년에는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에 서방이 적극 개입하여 독재 정권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또한 2000년과 마찬가지로 세네갈의 민중은 와드의 독재에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표명했다. 와드가 2011년 개헌의 의지를 표명하자 M23, 즉 6월 23일 운동을 벌임으로써 개헌을 저지했다. 또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와드의 후보 자격을 비난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Châtelot, 2012c). 결국 와드가 권력 이양을 포기한다면 세네갈은 거대한 폭력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또한 두 배 가까운 지지를 확보한 살의 승리를 의심할 그 어떤 명분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국민의 확고한 야권 후보 지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V. 세네갈 사례의 대표성

이 연구의 목표는 세네갈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세네갈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했다. 첫째 세네갈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특별한 식민 시기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더욱 친화적인 역사를 갖는다고 하겠다.

세네갈지역은 사헬 중심의 서부 아프리카 문명 시기에는 주변부 역할을 했지만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서양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세계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검은 아프리카 지역이 되었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서구와 교류했고,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의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 정치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둘째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하나의 균질적인 종교 문화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족 국가라는 안정적 정치 단위의 형성에 성공했다. 월로프라는 종족 공동체의 언어는 세네갈 내부에서 일종의 공용어로 부상하였고 이슬람은 세네갈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로 엮는 종교 공동체를 형성한다. 종족적 분쟁과 갈등이 심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⁵ 셋째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도적인 민족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며 특히 민주주의의 선두 주자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네갈의 민족 정체성에 서서히 민주주의라는 요소가 녹아 들어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물론 세네갈에서 발견되는 이상의 구조적 원인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세네갈과 마찬가지로 서구 제국의 아프리카 전진 기지로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네 비사우나 적도 기네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했다. 아랍어와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민족 공동체를 보유하는 북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오래 동안 세네갈과는 달리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 최초로 독립한 강력한 민족적 자부심의 기네도 세네갈과 달리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조건 그 자체보다도 이를 현실 정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적용하고 전개시키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정치의 전략적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생고르, 디우프, 와드라는 세 대통령의 선택은 민주화를 이끌어 내고 공고화하는데 무척 중요한 요인이다. 국부격 초대 대통령인 생고르가 사실은 ‘제국의 마지막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세네갈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세네갈 정치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5. 세네갈도 종족적 갈등과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남부 카자망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세네갈의 민족국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카자망스가 이슬람 월로프 공동체를 지배하려 하거나 분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프랑스어권,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였다. 따라서 그는 세네갈에서의 독재의 연장이나 세습보다는 권력을 이양하는 선택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디우프의 경우는 선거 정치를 통한 권력의 재창출에 습관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이 결국은 선거에 대한 의존을 가져왔고, 의도와는 달리 민주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도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프랑스어권 총재에 임명됨으로써 민주적 기여에 대한 국제적 보상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디우프와 와드의 경우 모두 결선투표가 존재하는 2단계 대통령 선거 제도가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프랑스의 오랜 전통인 2단계 선거 제도가 아니었다면 2000년과 2012년의 여야 정권 교체는 세네갈에서 불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와드는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개입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제적 환경과 군부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았다는 정치적 조건 등이 추가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 세네갈에서 정치의 역사적 진화는 매우 특수한 구조적 조건과 현실정치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과이며, 실제로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세네갈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야말로 단숨에 이뤄지기 보다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많은 행위자들이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진실이다.

투고일자: 2012-07-02 심사일자: 2012-08-21 게재확정: 2012-09-03

참고문헌

- 이한규. 2001. 「탈냉전 이후 아프리카 민주화 과정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41집 3호 pp. 409-435.
- 조홍식. 2011. 「국가·민족·종족: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서울대국제대학원) 20권 2호 pp. 97-126.
- 한양환. 1999. 「아프리카의 종족 분류: 후투 투치족 간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그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39집 1호 pp. 395-415.
- African Elections Database,
http://africanelections.tripod.com/sn.html#2000_Presidential_Election (accessed on 23

- June 2012).
- Akines, F. 1996. *Mirages de la démocratie en Afrique subsaharienne francophone*. Paris: Karthala Codesria.
- Amselle, J.-L. 2010. *L'Occident décroché Enquête sur les postcolonialismes*. Paris: Fayard.
- Badie, B. 1992. *L'Etat importé*. Paris: Fayard.
- Bancel, N., Blanchard, P. et Vergès, F. 2003. *La République coloniale*. Paris: Albin Michel.
- Bates, R. H. 2008.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Century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yart, J.-F. 1989. *L'Etat en Afrique*. Paris: Fayard.
- Bayart, J.-F. 2010. *L'islam républicain - Ankara, Téhéran, Dakar*. Paris: Albin Michel.
- Bouquet, C. 2007. *Géopolitique de la Côte d'Ivoire*. Paris: Armand Colin.
- Châtelot, C. 2012a. "Au Sénégal, Abdoulaye Wade reconnaît sa défaite." *Le Monde*, le 27 mars.
- Châtelot, C. 2012b. "Présidentielle sénégalaise: large front anti-Wade." *Le Monde*, le 24 mars.
- Châtelot, C. 2012c. "Sénégal -Le rouleau compresseur Wade." *Le Monde*, le 19 février.
- Copans, J. 1980. *Les marabouts de l'arachide*. Paris: Le Sycomore.
- Crowder, M. 1962. *Senegal. A Study in French Assimilation Policy*. London: Methuen.
- Cruise O'Brien, D. 1975. *Saints and Politicians. Essays in the Organization of an Islamic Brother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ise O'Brien, D. 1979. "Langue et nationalité au Sénégal. L'enjeu politique de la wolofisation." *Année Africaine*. pp. 319-35.
- Decraene, P. 1985. *Le Sénégal*. Paris: PUF.
- Diop, C.A. 1967. *Antériorité des civilisations africaines - Mythes ou vérité historique*. Paris: Présence africaine.
- Diop, M.-C. 2002. "Réformes économiques et recompositions sociales." D. Cruise O'Brien, M.-C. Diop, et M. Diouf. (Eds.), *La construction de l'Etat au Sénégal*. Paris: Karthala.
- Diop, M.-C. et Diouf, M. 2002. "Léopold Sédar Senghor, Abdou Diouf, Abdoulaye Wade, et après?" D. Cruise O'Brien, M.-C. Diop, et M. Diouf. (Eds.), *La construction de l'Etat au Sénégal*. Paris: Karthala.
- Diouf, M. 2001. *Histoire du Sénégal: Le modèle islamo-wolof et ses périphéries*. Paris: Maisonneuve & Larose.
- Droz, B. 2006. *Histoire de la décolonisation au XXe siècle*. Paris: Seuil.
- Englebert, P. 2000. *State Legitimacy and Development in Africa*. Boulder: Lynne Rienner.
- Faidherbe, L. 1889. *Le Sénégal. La France en Afrique Occidentale*. Paris: Hachette.

- Fatton, R. 1987. *The Making of a Liberal Democracy: Senegal's Passive Revolution*. Boulder: Lynne Rienner.
- Gellar, S. 2005. *Democracy in Senegal: Tocquevillian Analytics in Af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n, Y. 2001. Réflexions sur le modèle sénégalais de la démocratie africaine: Expériences et leçons. 『한국어아프리카학회지』 13집. pp. 3-16.
- Hastings, A. 1997.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li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gon, P. 2009. *Géopolitique de l'Afrique*. Paris: SEDES.
- Karl, P. L. 1997. *The Paradox of Plenty: Oil Booms and Petro-States*.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Bokolo, E. 1985. *L'Afrique au XXe siècle - Le continent convoité*. Paris: Seuil.
- Ousmane, S. 1981. *Le Dernier de l'Empire*. Paris: L'Harmattan.
- Senghor, L. S. 1964. *Liberté 1: Négritude et humanisme*. Paris: Editions du Seuil
- Shafer, D. M. 1994. *Winners and Losers: How Sectors Shape the Developmental Prospects of Stat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R. M. 2003. *Stories of Peoplehood: The Politics and Morals of Political Membe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Economist. 2012. "Senegal's election: Lucky Macky." April 7th.
- Thies, C. G. 2009. "National Design and State Building in Sub-Saharan Africa." *World Politics*, 61(4): pp. 623-669.
- Tréan, C. 2002. "Le sommet de Beyrouth marque une volonté de relance politique de la francophonie." *Le Monde*, le 22 octobre.
- Young, C. 1994. *The African Colonial St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frica and Democracy: Historical and Strategic Analysis of the Senegalese Case

Hong Sik Ch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This article questions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in Africa by analyzing the reasons for successful democratization of Senegal. I examine the structural factors and strategic processes which allowed this country to deal with traditional African constraints such as colonial legacy, the difficulty in the formation of stable nation-state, ethnic rivalry which often turns into confrontation, and economic fragility. I emphasize Senegal's status as semi-periphery in the colonial period, the elaboration of a Wolof-Islamic center of nation-state identity, and the proud consciousness of Senegalese people as the leading civilized and democratic nation in Africa, as the main structural factors for democratization. In the analysis of strategic processes, I underline the cumulative effect of semi-democratic elections in the long term, the division of the incumbent camp and the unity of oppositions, the massive mobilization of citizens eager for change, as well as the two-round runoff electoral system imported from France.

Keywords: Africa, democracy, Senegal, state, nation, identity